

04

문화시설 통합 운영



- I. 경기도박물관
- II. 경기도미술관
- III. 백남준아트센터
- IV. 경기도자박물관

지난 1997년 창립 이래 경기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달려왔던 경기문화재단이 2008년 경기도박물관(용인)·경기도미술관(안산)·경기도자박물관(광주) 등 3개 기관을 통합하면서 본격적인 경기 문화예술의 허브이자 대표기관으로 첫발을 내딛었다. 이번 통합은 국내에서 처음 시도된 것으로 이들 기관은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독립형태로 운영돼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됐다. 또 박물관과 미술관의 독자사업 및 재단사업과 연계한 탄력적인 사업운영으로 경기도민들의 문화수요에 적극적 대응해 나갈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통합경기문화재단은 박물관·미술관을 지역문화예술을 견인하는 복합문화센터로 육성하고 국제 네트워크 구성 및 아시아 문화교류의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통해 경기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통합민영기관으로서의 시너지 효과를 발현해 나가고 있다. 또한 2008년 백남준아트센터를 개관했으며, 실학박물관을 2009년 개관을 목표로 건립중에 있으며, 경기창작센터와 전곡선사박물관, 경기도어린이박물관 등 3개 문화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I. 경기도박물관

경기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참여프로그램 운영으로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문화소외 지역 도민들을 직접 찾아다님으로써 지역간, 계층간 문화향유 균등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경기도의 역사와 문화를 조사, 발굴하여 학술조사보고서를 발간하고, 문화재의 보존·관리는 물론, 성인들을 위한 박물관대학, 문화유적답사, 초·중등학생들을 위한 어린이 문화학교, 그림그리기 대회, 문화영화 상영 등 다양한 문화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1996년 6월 21일에 개관한 이후 2008년 3월 1일자로 경기문화재단 소속으로 변경됐다.

지역문화 교육기능 활성화

-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참여 프로그램 운영으로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 문화소외 지역 도민들을 직접 찾아다님으로써 지역간, 계층간 문화향유 균등기회 확대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내용

어린이·청소년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 조랑조랑 따라하기(유치원생 박물관 관람예절 교육)
 - '08년 상하반기 총 20회 운영(도내 유아기관 20곳, 600여명 참여)
- 동동하하 우리문화 배우기(어린이 문화체험 프로그램)
 - 겨울방학(1.29~2. 1, 2회 100여명 참여), 여름방학(7.29~8. 1, 2회 100여명 참가)
- 우리는 역사탐험가(중·고등학교 연계 프로그램)
 - '정조와 화성' 현장 답사 프로그램 등 상하반기 총 6개 학교 180여명 참여
- 고3수험생을 위한 프로그램

- 직업으로서의 박물관과 박물관의 소개(수능시험 이후 6개 학교 1,400여명 참가)

성인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 성인 역사문화 강좌 '뮤지엄 아카데미' 운영
 - 제5기(4.16~6. 4) '서양중세문명', 제6기(9.10~10.29) '한국인, 삶과 사상' 진행
- 유·초·중등 교원 박물관 문화연수
 - 겨울방학 초·중등 교원 연수(1.15~1.24), 여름방학 유·초·중등교원 워크숍(8.11~8.14)

가족 프로그램 운영

- 박물관 문화 답사 : 상하반기 총 6회 480여명 참여
- 우리 가족 박물관 여행(주말 가족 프로그램) : 상하반기 총 11회 660여명 참여

주한 외국인 및 장애인 문화체험 프로그램

- 주한 외국인 우리문화체험 : 상하반기 9회 260명 참가
- 장애인 어린이 문화체험 : 상하반기 8회 245명 참가

제12회 초등학생 문화재 그림그리기 대회 개최(5. 19) : 250개교, 1,022명

문화공연 프로그램 운영

- 문화영화 상영(연중) : 총 468회 상영 / 총 47,505명 관람
- 전통 혼례 지원 : 전통 혼례 총 18쌍 지원(원형극장)
- 전통민속놀이 공연
 - '해설이 있는 춤의 향연' 6회 진행(5~11월), '무형문화재 초청공연' 6회 진행(4~12월)
 - 야간 개관 특별공연(경기도립극단, 무용단) 4회 개최(8월)

찾아가는 박물관 운영

- 이동식 박물관 차량을 이용하여 도내 초등학교, 문화시설 방문
- 도내 초등학교, 특수학교, 사회복지시설, 지역축제 등 총 78회 운영, 24,399명 참가



유물의 발굴과 연구

- 경기도 문화재에 대한 기초자료 제공 및 집대성을 통해 새로운 역사인식 제고 및 문화연구 활성화

경기문화유적 학술 발굴조사

경기남부지역 한성 백제시대의 사회·경제 복원 시도 및 화성 소근산유적의 학술발굴조사를 실시 하는 등 한성백제 연구의 고고학적 기초 자료를 확보·활용하였다. 이와 같이 경기남부지역의 한성백제시대 유적을 선별, 연차적으로 발굴한 결과를 보고서로 간행해 연구 성과 공유 및 향후 발굴유물을 전시할 계획이다.

내용

경기도내 유적 학술연구

- 경기도내 유적 학술발굴조사
 - 한성백제유적 등 삼국시대 유적을 집중 조사하여 연구 및 전시자료로 활용
 - 파주 십지원묘 발굴조사, 학술조사보고서 발간, 발굴유물 정리 및 전산화 실시
 - 한성백제유적(화성 소근산 유적) 발굴조사 실시
- 전적 고문서 번역서 발간
 - 경기지역 대표적 학자인 윤행임의 관직일기인 '석재일록' 번역
- 박물관 소장 기증 출토복식 복원 명품선 발간

학술세미나 개최

- 박물관 학술사업의 결과 총정리, 학계·문화계 명사초청 강연회 개최
- 초상화 특별전 관련 학술경연대회 개최(9. 18), 서울경기고고학회 공동 학술세미나 개최(10.18)
- 명사초청 강연회(12.11), 특별초청 강연회(12.18)

학술조사 보고서 발간파주

이미성 및 수철성 유적에 대한 정밀 학술조사보고서를 간행하여 산성의 성격 파악 및 고고학 자료 로 활용, 박물관 연구기능을 극대화 했다. 파주 이미성과 수철성 주변지역 유물의 정밀 실측도면 등 을 작성해 조사보고서를 발간·배포하여 고구려 산성 연구에 기여했다.

발굴유물 정리 및 전산화

발굴유물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관리로 문화유산을 영구 보존하고 고고학 관련 기획전시 및 학술 연구 자료로 활용하여 연구기능을 극대화 했다. 또한 유물을 유적별로 전산화 한 뒤 수장고에 체계적으로 보관했으며 발굴자료 및 전산자료를 별도 보관 관리하고 있다.

내용

- 연천 삼거리유적 발굴유물 전산화 및 도면, 사진 자료 정리
- 하남 춘궁동 유적 발굴유물 전산화 및 도면, 사진 자료 정리
- 평택관방유적, 파주 월릉산성 등 발굴유물 전산화 및 자료정리

전적·고문서 번역서 발간

내용

- 응인 평창리 구석기 유적 출토유물 전산화 및 관련 자료정리 보관
- 평택 광역조사 출토유물 전산화 및 관련 자료정리 보관
- 포천 성동리 유적 출토유물 전산화 및 관련 자료정리 보관

고문서 번역을 통해 경기지역 역사를 재조명 하고 조선시대 경기도의 사회상을 파악기 위한 것으로 경기지역 대표 학자인 윤행임의 관직일기인 <석재일록>을 번역했다.

번역대상 자료의 기초조사

- 역사문화적 가치, 분량, 저자 교유 관계 등

번역자 선정 (2008.3.31)

- 이해형(전 한양대학교 고서담당 사서), 이명래(국사편찬위원회 번역위원)

번역 원고 인수 및 원고료 일부 지급(2008.9.12)

- 이해형(1,000매 분량), 이명래(700매 분량)

번역 원고 인수 및 원고료 잔액 지급(2008.12.3)

- 이해형(1,073매 분량), 이명래(944매 분량)

소장품 수집 및 관리

수준 높은 전시 및 연구수행을 위한 탁월한 소장품의 확보로 박물관 위상 제고

- 소장품 구입 : 유물 기증(235건 235점), 유물 위탁(91건 151점), 유물 구입(11건 41점)
- 소장 유물 15,000점의 안전한 보관 및 상태 유지관리

2008년도 유물 수집 내역

	구입유물	기증유물	위탁유물
2008년도	11건 40점	235건 235점	91건 151점

2008년도 소장유물 현황

- 분야별 현황 (2008.12.31현재, 건(점, 주수량))

	계	소장	참고자료	위탁
계	8,234(13,454)	6,863(10,548)	1,014(2,288)	357(618)

선사/고대: 기타	527(808)	461(732)	65(75)	1(1)
고미술국학: 도자기	709(999)	605(819)	82(119)	22(61)
고미술국학: 일반회화	329(363)	305(334)	7(7)	17(22)
고미술국학: 불상	34(37)	16(18)	17(18)	1(1)
고미술국학: 불화	19(19)	19(19)		
고미술국학: 고도서	1,434(2,303)	1,005(1,444)	323(649)	106(210)
고미술국학: 탑	3(18)	3(18)		
고미술국학: 비	1(1)	1(1)		
고미술국학: 기타	2,878(3,427)	2,663(3,144)	72(88)	143(195)
민속품: 민속품	2,141(5,019)	1,657(3,888)	419(1,005)	65(126)
보건의료: 의료기구	16(19)	16(19)		
기타: 기타	143(441)	112(112)	29(327)	2(2)

• 수집방법별 현황 (2008.12.31현재, 건(점, 주수량))

	계	소장	참고자료	위탁
계	8,234(13,454)	6,863(10,548)	1,014(2,288)	357(618)
구입품	4,259(6,881)	4,259(6,881)		
기증품	3,043(4,433)	2,595(3,658)	448(775)	
수집품	575(1,522)	9(9)	566(1,513)	
기탁품	357(618)			357(618)

지정문화재

• 지정문화재 보유현황 (2008.12.31현재)

구분	수량(건)	수량(점)
계	53	72
국가지정		
소계	36	36
국보	1	1
보물	35	35
도지정	17	36
유형문화재	15	34
문화재자료	2	2

• 2008년도 신규 지정문화재

지정번호	문화재명(지정명칭)	수량(건)	수량(점)	소장번호	지정일
계		2	2		

보물 1577	증급유방	1	1	소장 5401	20081017
보물 1579	초조본 성지세다라니경	1	1	소장 5278	20081222

• 2008년도 보존과학실 운영 현황

구분	수량	비고	
보존처리		소장 189점	
수탁	11점		
발굴	280점		
출토복식	143점		
계	623점		
분석			
구조분석	170건		
성분분석	160건		
계	330건		
보존환경관리	문화재종합 해충방제시스템	1회(연중)	박물관 10,200cm ²
	훈증고 훈증소독	2회	훈증고 1실
계	3회		

설전시 운영

경기도박물관은 도민을 위한 전통문화의 장으로 경기문화의 흐름과 특성을 조명하고자 <자연사실>, <고고미술실>, <문헌자료실>, <민속생활실>, <서화실>, <기증유물실> 등을 상설로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야외 전시장에는 고인돌, 고분, 우물, 부도, 석등, 연자방아, 물레방아 등을 복원 또는 이전 전시하고 있다.

특별전시회 개최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문화와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기 위해 조선초상화 특별전과 삼양고궁박물관 소장유물전 등 3회에 걸쳐 특별전을 개최했으며 아울러 전시와 교육을 결합한 어린이발굴체험전도 개최하였다.



조선초상화 특별전 <초상, 영원을 그리다>展
6월 21일부터 9월 28일까지 한국미술사에서도 대표적인 장르로 손꼽히고 있는 조선시대의 초상화 특별전을 개최했다.

경기도박물관은 조선시대의 초상화를 경기도박물관 전신인 경기도향토사료관(1986년 개관) 때부터 수집·보존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종종들로부터 기증 받아 보존·복원 처리해 소장하고 있던 40여점의 초상화를 이번 특별전에 전시, 조선시대의 초상화의 높은 예술수준을 엿볼 수 있게 하였다.

<초상, 영원을 그리다> 특별전에는 현존하는 포은 정몽주(1337-1392) 초상을 비롯하여, 조선왕조의 명재상 황희(1363-1452), '오성과 한음' 이야기로 유명한 한음 이덕형(1561-1613), 사도세자의 장인

이자 정조의 외할아버지인 홍봉한(1713-1778), 조선후기 유럽의 종장 허전(1797-1886) 등 조선시대 역사 속 공신과 사대부들의 영정 등이 전시되어 큰 주목을 받았다.

어린이발굴체험전

여름방학을 맞은 어린이를 위하여 발굴체험 행사를 개최하였다. 당초 여름방학 기간 중에만 한시적으로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동절기 이전까지 운영기간(8.2~11.1)을 연장하여 상설 체험프로그램으로 전환하였다.

실내 전시장 중심이었던 박물관 관람에서 벗어나 야외 체험장에서 직접 발굴현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문화유적 발굴조사를 통해 발굴과정을 경험해보고 청동기시대 생활상을 상상하며 추리해보는 고고학 체험교실도 운영하였다.

발굴체험은 2종류로 청동기시대 집터와 청동기시대 고인돌 발굴 프로그램을 준비하였다. 교육프로그램은 참가 학생의 학년을 고려하여 진행하였다. 초등학교 저학년은 기초적인 우리의 역사와 생활상을 역할극을 통해 이해하며, 고학년은 고고학과 발굴 과정을 이해하고 유물을 통해 당시 사회 모습을 추리하도록 유도하였다. 체험에 참가한 어린이들은 고고학 연구로 밝혀진 청동기시대의 역사적 사실을 자신이 직접 발굴한 유구와 유물을 통해 이해하고 역사 속으로 다가갈 수 있었다. 또한 체험을 통해 멀게만 느껴질 수도 있는 우리 역사와 과거 생활을 이해하고 풍부한 상상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여름방학 중에는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역사퍼즐맞추기대회', '목책·숫대만들기 체험', '고인돌 별자리 탐험' 등 부대행사를 운영하였다. 개최기간 중 총 126회의 교육이 진행되었고 1,944명의 초등학교생이 발굴체험에 참가하였다.



심양고궁박물관 소장 청 황실 보물전

경기도박물관은 이전에 우리나라에 여러 번 소개된 중국의 도자기나 회화작품 중심이 아닌, 청 황실에서 실제 사용했던 화려한 공예품과 복식, 무기류, 일상용품, 그리고 황실 소장용의 도자기, 회화 등 각 분야에 걸친 작품 77건을 전시하였다. 2008년 10월 25일부터 2009년 2월 1일까지의 전시회에 소개된 작품들은 심양고궁박물관 소장품의 정수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심양고궁박물관과의 전시회는 경기도박물관과 앞으로 이루어질 박물관 운영전반, 학술, 전시, 인적 교류 등의 상호간 중장기 교류를 위한 시발이라는 의미가 있다. 전시회 구성은 <청 황실 자기>, <명·청대 회화>, <청 황실 용품>, <청 황실 무기>, <청 황실 복식>, <청 황실 식기>의 여섯 부분으로 전시돼 관람객들에게 청황실의 화려했던 궁중문화를 접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나아가 이번 전시회는 2002년에 이루어진 요령성박물관과의 전시회에 이어 우리와 역사·문화적으로 지속적인 관계를 이어온 중국 동북지역의 중요 문화기관에 경기도와 박물관을 알리는 귀중한 계기도 되었다. 전시회 기간 중 관람객들이 전시회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오래 기억되는 문화체험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만주어로 도장찍기', '나의 소원 짚어가기', '청나라 보물 퍼즐 맞추기'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황실의 문화와 예술을 좀 더 가까이 느끼게 하였다.

II. 경기도미술관

'08 현대미술 기획전

- 지역성과 세계성, 미술과 타 예술장르와의 협업, 현대미술의 중요 이슈를 아우르는 기획전시를 통해 미술의 흐름을 소개하고 새로운 담론 창출

**현대미술의 실험과 확장전
(이미지 반전)전**

일상 속에 숨어있는 네거티브의 세계를 미술의 언어로 재구성한 '이미지 반전(Negative Image)'전이 5월 23일부터 7월 6일까지 개최했다. 이 전시는 미술 전 분야에 걸쳐 실험성이 강한 24명의 작가들이 회화, 조각, 판화, 설치, 영상 등 총 87점의 작품 전시를 통해 다양한 네거티브 형상을 선보였다. <이미지 반전>전은 반전된 이미지를 통해 '뒤집어 보기'의 시각적 충격을 전달하고자 했는데, 이를 위해 네거티브의 다양한 세계를 Strange(충격), Paradox(역설), Trace(흔적), Subconsciousness(무의식)로 구성하여 탐색하였다.

**현대미술의 동향전
(창작해부학)전**



<창작해부학>전은 현대미술에 대한 대중적 이해를 도모하고 작업과정을 쉽게 이해하는 교육적 효과 및 각 작가의 예술세계를 심층적이고도 다각적인 맥락으로 재조명하는 기회를 제공키 위해 기획됐다.

7월 19일부터 9월 15일까지 열린 이 전시에는 회화, 조소, 사진, 영상 등 40여점의 작품이 소개되었고 작품의 맥락을 보여주는 시각 구성물 170여점이 별도 전시 됐다. 홍경택, 유현미, 박준범, 구동희·리경·오상택·이민호·임택·김윤수·이혜민선·뎬 등 15명이 참여하였다.

이는 다양한 창작의 과정과 완성작품을 한 공간에서 보여주는 전시로 특히 창작행위가 이뤄지는 작업실의 공간과 구조물의 재현 및 작품의 주제·개념의 설명을 돕는 해석적 보조물이 연출됐고, 전시 작품 해설 및 작가와의 대화시간, 작가 워크숍 등을 함께 진행해 관람객들의 이해를 도왔다. 관람객들에게 난해한 현대미술을 받아들이고 공감하는 동시에 독특한 아이디어와 제작 과정을 통해 창작의 결과물인 작품이 일상과 다른 어떤 특별한 행위인지를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도 제공했다.

**미술과 건축의 교감전
(크로스 장르)전**

경기도미술관은 현대미술과 맥락을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분야의 장르들과 접점을 찾아 탐색하는 전시로 <크로스-장르> 기획전을 시도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전시로 건축을 다루었다. 2008년 12월 27일부터 2009년 2월 15일까지 열린 <크로스-장르>전은 현대미술과 시대를 함께 아우르는 패션, 건축, 디자인 및 동시대를 호흡하는 시각예술과의 결합을 통해 도민들에게 폭넓은 예술적 시야를 제공했다.

한국의 조민석, 미국의 제프리 이나바, 덴마크의 비야케 잉겔스, 중국의 마안송 등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4명의 건축가들이 미술관이 소재한 안산시를 대상으로 건축 마스터플랜을 제안했고, 미술관 로비에 건축물을 변형시킨 오브제를 비롯해 렌더링 사진, 시뮬레이션 영상 등을 전시해 복합 공간으로 꾸몄다.

조민석의 '변종 아파트와 로봇 타워'는 실린더와 육면체 블록을 입체 퍼즐처럼 조합할 수 있는 건축

설계로, 로비의 관람객을 위한 테이블과 의자로 쓰일 수 있도록 설치됐다. 단순한 육면체들을 유선형 상태로 쌓은 앵겔스의 '도시의 다공성'은 책이 꽂힌 서가 겸 의자로 변신했고, 피라미드 형태의 건축물인 마안송의 '아름다운 마음'은 독서 램프가 달린 의자의 모습으로 관람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경기미술 연례전 (언니가 돌아왔다)전

근대 여성 미술의 선구자인 나혜석 작가의 타계 60주년을 기념해 신구세대 여성상의 변화와 더불어 새로운 시대의 여성 미술에 대한 시대적 담론을 제시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됐다. '08년 10월부터 2009년 1월 4일까지 열린 이번 전시는 근대 나혜석과 현대 윤석남을 두 축으로 경기도 여성미술의 현황과 실체를 점검하고 새로운 시대의 변화된 여성상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언니'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해 부르는 호칭으로 '여성성'과 '여성상'의 의미를 아우르는 것으로 남성적 사관으로 집약된 역사에 맞서서 '그녀들의 역사'를 당당히 주장하고 기술해 나간다. 나혜석과 윤석남을 두 축으로 강은수, 김인순, 박영숙, 방정아, 봉인옥, 손정은, 이순중, 장지아, 태이, 하차연 등 총 26명의 여성 작가들이 여성에 의한, 여성을 위한, 여성 그대로의 이미지를 창조해 전시했다.

도민의 전시관람기회 확대

- 도민의 문화향수권 신장 및 도내 문화공간과의 네트워크 구축

찾아가는 경기도미술관

소장품을 사장하지 않고 도민을 직접 찾아 나섬으로써 예술에 대한 거리감 해소 및 도민의 문화향수권을 신장시키고 도내 문화공간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4월부터 순회를 시작한 '찾아가는 경기도미술관'은 미술관 소장품 중 총 60여점을 선정, 의정부 예술의 전당과 평택호예술관 등 도내 문화공간 10개소에서 순회 전시를 가졌고 총 53,810명이 전시를 관람했다

내용

- 의정부 예술의전당(4.2~4.22) 38점 전시/ 1,131명
- 안산 문화예술의전당(5.2~5.28) 32점 전시/ 5,274명
- 과천 정부종합청사(6.4~6.25) 22점 전시/ 23,897명
- 동두천 자유수호평화박물관(7.17~7.29) 14점 전시/ 1,069명
- 김포 문화예술회관(8.4~8.17) 29점 전시/ 303명
- 의왕 책마루도서관(9.2~10.5) 19점 전시/ 15,232명
- 화성 창문아트센터(10.8~10.29) 14점, 창문아트센터 50점 전시/ 2,150명
- 하남 문화예술회관(11.7~11.30) 22점 전시/ 1,854명
- 성남 전자청소년수련관(12.15~12.29) 15점 전시/ 1,365명

한뼌 갤러리 운영

지난 2007년부터 추진 중인 한뼌 갤러리는 다중집합 장소인 지하철역에 퍼블릭 아트 유형의 한뼌 갤러리를 설치, 일상에서의 예술 향유기회를 제공했다. 1월부터 12월까지 안산지역 지하철 4호선 공단역, 중앙역, 안산역 등에 한뼌 갤러리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전시와 교육홍보를 다각화 했다.

'5만의 창, 미래의 벽' 어린이 벽화 프로젝트



경기도미술관과 강익중 작가가 함께 진행한 어린이 벽화 프로젝트로, 아이들의 꿈이 담겨 있는 5만 장의 그림을 모아 벽화로 설치하였다. 학교교사, 지역사회교사, 외국인 근로자, 고등학생, 대학생, JSA 군부대원, 장애인, 노인회, 보호 감찰자 등 다양한 경력의 수많은 자원활동가들이 어린이벽화연구회와 함께 노력봉사하였다. 2008년 9월 6일부터 일반에 공개되어 경기도미술관 1,2층 벽면에 상설 전시되고 있다.

미술관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 미술관 진행 전시에 대한 효율적인 정보제공과 체험교육 참여기회 확대

전시연계 교육 프로그램

미술관 기획전시에 대한 효율적인 정보제공과 관람객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찾아보는 그림책', '반사!!반사!!!', '이야기로 그리는 미술' 등 5차례 전시연계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였다.

내용

- '작품의 재구성' 전시연계 교육프로그램 '찾아보는 그림책' 기획 및 운영
 - 교육참가자 2,737명
- '이미지 반전' 전시연계 교육프로그램 '반사!!반사!!!' 기획 및 운영
 - 교육참가자 1,270명
- '창작해부학' 전시연계 교육프로그램 '이야기로 그리는 미술' 기획 및 운영
 - 교육참가자 1,102명
- '언니가 돌아왔다' 전시연계 교육프로그램 '함께 만드는 여성' 기획 및 운영
 - 교육참가자 1,764명
- '경기도미술관@안산' 전시연계 교육프로그램 '공간 탐험' 기획 및 운영
 - 교육참가자 503명

학교연계 (교육)프로그램

초·중등 현직교원을 초청해 전시기획 내용을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와 체험의 기회 제공으로 교육 자료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또한 미술관 전문직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해 현장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내용

교원초청 워크샵

- ‘찾아가는 경기도미술관’과 연계한 북부지역 교원초청 설명회 개최 (4/10)
- ‘이미지 반전’전 교원초청설명회 및 미술체험교육 워크샵 개최 (6/11) : 교원 25명 참석
- ‘언니가 돌아왔다’전 교원초청설명회 및 미술체험교육 워크샵 개최 (10/29) : 교원 32명 참석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 상반기 인턴십 운영 (1/21 ~ 7/31)
 - 상반기 인턴십 수료 발표회 개최 (7/28), 3명 (학예, 교육, 홍보) 수료
- 하반기 인턴십 운영 (2008년 8월 ~ 12월)
 - 하반기 인턴십 수료 발표회 개최 (12/30), 1명 (학예) 수료

현대미술아카데미

동시대미술에 대한 전문 강좌 및 명사초청 특강을 통해 현대미술에 대한 이해를 도움으로써 미술에 호인구의 증대를 도모했다.

내용

‘전후 한국의 현대미술’강좌 프로그램 5회 운영(11/1~12/20) - 참여인원 : 122명

- 전후(195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세계 미술의 흐름 속에서 한국 현대미술의 동향을 개괄하여 살펴보는 자리로, 전반적인 현대미술의 경향을 필두로,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10년 단위로 당시의 문화적 상황과 작가의 역할, 작품 세계 등을 각 시대에 활발한 활동을 펼친 작가들로부터 직접 들어볼 수 있는 기회 마련
 - 1강 - 전후 현대미술의 흐름(강사: 경기도미술관장 김홍희)
 - 2강 - 1970년대 한국 현대미술 (강사: 이진용 작가)
 - 3강 - 1980년대 한국 현대미술 (강사: 홍성담 작가)
 - 4강 - 1990년대 한국 현대미술 (강사: 최정화 작가)
 - 5강 - 2000년대 한국 현대미술 (강사: 이수경 작가)

명사초청특강 ‘건축가 4인과 함께하는 현대건축 이야기’ 운영(12/17)-참여인원 : 74명

- 2008년 현재 현대건축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며 주목을 받고 있는 4인의 건축가들로부터 현대건축과 그들의 프로젝트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 마련
- 강사 : 제프리 이나바 (Jeffrey Inaba, 미국), 조민석(한국), 비아케 인겔스 (Bjarke Ingels, 덴마크), 마안송(馬岩松, 중국)

III. 백남준아트센터

백남준아트센터 개관 및 운영

- 세계 최초 백남준 예술·사상적 성취 계승한 국제 수준의 아트센터개관
- 실험적인 미디어아트의 터전 및 국제적인 문화예술 창작거점 육성

건립개요

한국이 낳은 세계적 미디어 예술의 거장인 백남준의 예술혼이 깃든 ‘백남준이 오래 사는 집’, 백남준아트센터가 4월 30일 준공됐다. 43개국 439개 팀이 참여한 국제현상설계공모전에서 독일의 크리스틴 슈멜이 제출한 ‘The Matrixe’를 설계로 지난 2006년 5월 착공한지 2년만의 일이다. 백남준아트센터는 360억여원을 투입하여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일원 13,000㎡에 연면적 5,605㎡ 규모로, 상설 및 기획전시실과 창작공간, 교육실, 수장고 등을 갖추고 있다. 10월 8일 개관한 백남준아트센터는 개관 기념 행사로 2009년 2월 5일까지 아트센터를 비롯해 인접한 신갈고등학교 체육관, 지앤아트 스페이스에서 ‘백남준 페스티벌-Now Jump’를 진행했다.

백남준아트센터의 건립으로 경기도는 백남준의 천재성과 창조성을 전 세계로 발산할 수 있고 세계 미디어아트의 중심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터를 마련했다.

2003년 UIA공인 국제현상설계 공모(430개작 지원)를 통해 젊은 독일 건축가 키르스텐 슈멜의 The MATRIX 선정(마리나 스타코빅 공동 설계).

건축물 외부면은 전면이 철골조와 유리 파사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부 공간에는 전시실, 비디오 아카이브, 멀티퍼포즈 홀 등이 갖추어져 있다.

준 공 : 2008년 4월 30일

규 모 : 부지면적 69,358㎡ 연면적 5,600㎡의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

위 치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85번지

주요시설 : 전시실, 교육실, 다목적실, 카페테리아, 아트스토어 등



08년 개관운영

앞서 지난 2001년 경기도와 백남준은 아트센터 건립을 논의하기 시작했으며, 생전의 백남준은 그의 이름을 딴 이 아트센터를 '백남준이 오래 사는 집' 이라 명명했다. 2008년 10월 개관한 백남준아트센터는 작가가 바랬던 '백남준이 오래 사는 집'을 구현하기 위해 백남준의 사상과 예술활동에 대한 창조적이며 동시에 비판적인 연구를 발전시키고 그의 실천과 활동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관용적이고 비판적이며 학제적인 백남준의 작업과 인생의 영향을 받은 백남준아트센터는 다음과 같은 전시, 교육 및 연구를 수행한다.

- 백남준의 작품세계에 대한 밀도 깊은 연구를 바탕으로 한 상설전
- 동시대 예술의 논쟁적 이슈와 학예 연구에 기반한 정기 기획전
- 창조성의 의미와 백남준의 작품의 분석, 그리고 작가 백남준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제공 할 수 있는 연구의 중심점이 될 수 있는 워크샵, 세미나, 대담, 대중강좌, 이벤트 등의 교육 프로그램
- 음악, 혁신적인 예술적 실천, 미디어아트 등 다양한 예술분야를 아우르는 백남준과 관련한 컬렉션 구성
- 정치적이며 사회적인 의미의 가능성을 지적했던 전위적인 백남준의 정신적 유산과 그가 해석했던 창조성과 예술적 실천의 의미를 분석하는 출판 및 연구 프로그램

백남준은 유목민 기질과 포용적 정신을 가지고 기존의 세계관뿐만 아니라 전이적인 입장에까지도 전함으로써 고갈되었다고 믿어지던 예술의 가능성을 열었다. '백남준이 오래 사는 집'을 만들어가고 있는 백남준아트센터는 백남준의 이러한 특징을 환기시키고 그의 비판적 창조성을 함께 나누길 희망한다.(홈페이지 <http://www.njpartcenter.kr>)

개관기념 행사 및 페스티벌 개최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고홍길 위원장과 지역구 국회의원, 신재민 문화관광부차관, 노르베르트 바스 주한 독일대사 등 900여명의 국내외 인사 및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10월 8일 백남준아트센터 개관기념행사를 개최했다.

개관페스티벌은 2009년 3월 1일까지 신갈고 체육관, 지앤 아트 스페이스를 비롯한 백남준아트센터 일대에서 6개월간 각종 공연과 전시가 개최됐다. 백남준페스티벌의 타이틀인 'NOW JUMP'는 이슥우화 중의 한 구절, "여기가 로도스 섬이다, 지금 뛰어라!"(Hic Rhodus, hic saltus!)에서 차용한 제목으로 관념이 아니라 실행과 혁신을 강조하고 있다. 이 제목은 백남준아트센터가 바로 지금 여기에서 예술적 실천을 수행하고 '백남준페스티벌'을 통해 백남준을 넘어서는 미래의 예술로 도약하고자 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페스티벌은 '스테이션(정거장, 교육장, 발전소)'이라는 개념 하에 개관전 및 기획전, 퍼포먼스, 담론 생산의 플랫폼, 백남준 예술상의 다섯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Station 1

스테이션 1(개관전시)은 아카이브형 전시로 대형 비디오 모니터 설치 작품 위주의 전시성격을 벗어나 백남준을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는 각종 사진, 텍스트, 서신, 문서, 도록, 영상 등으로 백남준의 정신적 유산을 재구성하고 연출했다.

TV정원, TV물고기, 엘리펀트 카트, 삼원소 등 작품 12점, 자료 40점의 소장 작품과 만프레드 레베, 마리 바우어마이스터, 페터 바이벨 등의 대어 작품 201점 등을 전시했다

Station 2

스테이션 2(개관공연)는 국내외 퍼포먼스 14개팀 초청 및 퍼포먼스 작품 설치를 통해 다양한 퍼포먼스 프로그램을 개관페스티벌에서 소개함으로써 아트센터가 지향하는 복합예술센터로서의 면모를 부각시키며, 공연예술과 시각예술간의 간섭 및 융합을 국내 최초로 시도하여 백남준 예술을 동시대 예술 변화와 함께 재조명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 설치작품 : 료지 이케다, 윌리엄 포사이스, 하워드 판 더르 베르버, 피터 벨츠, 기욤 데장주, B.샤르마크, 크리스 베르동 등

Station 3

스테이션 3(기획전시)은 백남준의 정신을 이어받은 국내외 동시대 현대 작가들의 작품 전시로 백남준아트센터가 단순히 백남준 기념관이 아닌 비전을 향한 공간이라는 미래 지향적인 성격을 부각시키며 34개 팀의 설치비디오, 건축 작품을 소개했다.

- 신규작품 제작 : 기요시 구로다(1점) / 스티븐 스미스_니스텐 컨트롤 센터(2점) / 나마이키(1점) / 등 국내외 작가 13명, 15점 전시
- 대어작품 : 안드레 곤잘레스(1점) / 오렐리앙 프로망(6점) / 헤르빅 바이저(10점) / 폴그랑종(15점) / 임수지(1점) 등 국내외 작가 25명, 147점 전시

Station 4

스테이션 4(담론형성사업)는 예술의 사회적 공명을 꾀하기 위한 담론의 세계이다. 백남준 예술과 이후 예술의 파장이 가져온 맥락의 변화, 새로운 지형, 그리고 미지와 여백을 생각하는 세계이다. 주로 워크숍, 국제 심포지엄, 저널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5회의 워크숍과 2009년 2월 백남준페스티벌의 폐막 세미나인 제1회 국제심포지엄 <백남준의 선물 1-관점이동과 시간성>을 개최했다.

Station 5

스테이션 5(백남준예술상 준비)는 백남준아트센터의 국제소사이터티 구성을 통하여 2009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백남준아트센터 MI(Museum Identity)

백남준아트센터 MI (Museum Identity)는 백남준의 핵심 철학을 나타내는 조형을 채워 넣어, 앞으로 백남준아트센터의 심볼이 될 수 있는 수많은 가능성의 첫 번째로서 대표성을 부여했다. 대표심볼은 백남준아트센터의 대외적인 상징으로 기능한다.

백남준아트센터의 로고타입은 백남준의 작품인 "TV를 위한 선禪"(1963)에 영향을 받아 동양적 운필(運筆)을 느낄 수 있는 로고타입이다.

Ⅳ. 경기도자박물관

박물관 기획전시·교육

- 도자와 관련된 세부적이고 집중적인 주제의 전시를 통해 관람객의 흥미 유발과 새로운 관람물 제공

박물관 상설 및 기획전

'조선철화백자'전

'08년 12월 12일부터 '09년 2월 20일까지 진행된 특별전시는 '가마터 발굴·출토품을 중심으로'라는 부제로 진행됐으며 그동안 경기도자박물관이 발굴조사한 도자기 가마터 유적 가운데 경기도 광주 송정동·신대리 분원가마터와 안성 화곡리, 가평 하판리 가마터에서 출토된 조선 17~18세기 철화백자 유물 100점이 소개됐다.

이번 전시회에는 17~18세기에 제작된 경기도자박물관 소장의 '백자철화운룡문항아리'를 비롯해 경기도박물관과 개인소장자들이 소장한 명품유물 10여점도 함께 전시됐다.

특히 경기도박물관에서 대여되는 작품들은 경기문화재단으로 박물관들이 통합 운영된 이후 첫 번째 맞는 소장유물 순환전시라는 점에서도 관심을 모았다.

관람객들은 이번전시를 통해 조선철화백자에 담긴 조선사회의 의식변화와 왕실에서 사대부, 지방의 서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이 지녔던 미적 감각을 경험함으로써 가장 한국적인 백자라고 할 수 있는 철화백자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 보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한반도 근현대 도자의 방향'전



'조선이후 100년 - 남북한 도자 오늘의 모습'이라는 주제로 '08년 9월 26일부터 '09년 2월 22일까지 진행된 이번 전시는 조선시대 말기부터 현대에 이르는 남북한의 전통도자 유물 및 작품 총 129점을 비교 전시, 우리 전통도자의 현주소를 한반도라는 확장된 시각에서 조명했다.

특히 전시에는 박물관 연구진이 직접 평양의 만수대장작사 등을 방문·조사해 수집한 북한의 대표 근대작가 고 우치선, 임사준 등의 작품을 비롯 유명작품과 영상자료가 함께 소개돼 그동안 쉽게 접하기 어려웠던 북한도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문화재 학술조사·세미나

- 도자관련 문화재용역 및 자체조사를 통해 학술·전시자료를 수집하고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여 조사연구 성과를 발표·교류

'08년 문화재 학술조사

가평 하판리 백자가마터 발굴조사 등 총 6건 발굴 수주진행

※ 용역 수주액 763,690천원(집행액 : 464,022천원)

제6회 경기도자학술세미나

일시 : 2008. 12. 12

주제 : 최근 조사된 도자관련 고고학 연구자료 발표 및 토론(집행액 : 9,088천원)

분원백자자료관 · 조각공원 관리

- 박물관과 연계, 조선백자 계승발전의 주도적 문화공간으로 역할 기대
-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으로 문화정서 함양 및 쉼터 제공

분원백자자료관 관리 운영

분원백자관 및 부대시설 관리, 홈페이지 개편, 홍보기념품 구입 배포 등

기획전 '경기도의 도자유적'(9. 26~10. 26) 완료(집행액 : 112,498천원)

엑스포·스페인 조각공원 관리 운영

작품 관리를 정비 및 잡초제거, 훼손된 작품명·표지판 정리 외(집행액 : 89,166천원)

